

화웨이 사태로 길어지는 반도체 불황, 5G 등 백약이 무효

불황 길어져 실적 전망 하향 움직임
D램 값·팹 투자액 ↓... '상저하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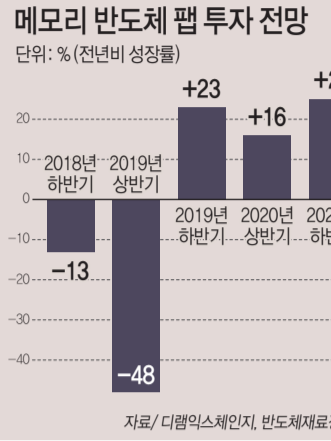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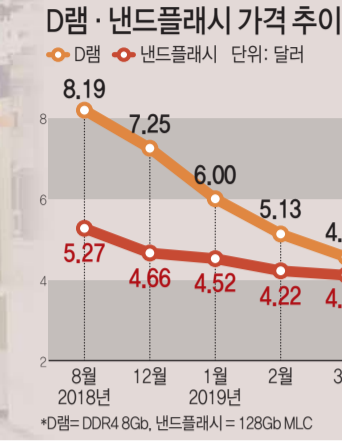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다.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를 낮추고, 반도체 수출 낙폭을 전년비 21.3%로 예상했다.

업황 회복 시기도 늦춰지는 모습이 다. 업계는 당초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탓이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최근 DDR4 8G램 가격은 3달러 후반대에서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보다도 5% 가량 더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20%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팹 투자액도 기대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올해 팹 장비 투자액을 당초 예상보다 5% 하향 조정한 전년비 -19%로 내다봤다. 반등이 보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메모리반도체가 상반기에만 -48% 감소할 것이라고 추



정했다.

이른바 '상저하저'다. 올해 말 삼성 전자 영업익이 전년보다 절반 이상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SK하이닉스는 올해 적자 우려까지 나왔다.

예측을 넘어선 반도체 불황은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 침체와 더불어 수요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절벽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화웨이는 최근 미국의 거래 중지 조치로 구글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안드로이드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게된 셈이다.

무역 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도 빨

리졌다. 영국과 호주 등 통신사들이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인 메이트 20X 판매를 중단했고, 일본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덜달아 중국 브랜드들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화웨이와 함께 ZTE를 다시 한 번 안보에 위협을 주는 기업으로 꼽으면서 위기감도 심화됐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도 현실화됐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가 소비자들도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화웨이와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면서 주머니를 닫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서버 업계도 당초 예상과 달리 3분기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투자를 재개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데다가, 내년 게임 스트리밍 등 서비스 확대를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버업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선불리 서버 확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혼란해진 CPU 시장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인텔이 새로운 서버용 CPU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가격 논란과 공급난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가 인텔 CPU 위탁 생산을 수주 받았다는 루머가 돌 정도. 반면 AMD가 내놓은 PC용 CPU에 호평이 이어지면서 경쟁 구도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5G 상용화가 지연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이 5G 장비 부문에서 화웨이 퇴출 작전을 가속화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5G 도입 일정을 연기하는 중이다.

5G 통신 도입이 늦춰지면서 IT 업계도 사업 일정 수정을 고민 중이다. 업계는 5G 통신이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새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아왔지만,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무역분쟁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며 "벌써부터 악영향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최악 시나리오는 "내년 美 대선 끝나야 회복"

3분기, 낸드플래시 반등 기대감
D램 가격 하락세 여전히 부정적

반도체 업계가 언제 업황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진다. 2분기에는 회복에 실패했지만, 3분기에는 당초 내다봤던 대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다.

주인공은 낸드플래시다. MLC 128Gb 낸드플래시 가격은 최근 들어 5달러 안팎에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3분기 호황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가

능성이 있다. 업계 2위인 도시바가 최근 정전 사고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D램 가격 전망은 여전히 밝음을 붙잡는다. 디램익스체인지의 하반기에도 D램 가격 하락폭을 1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2020년까지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실제로,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고위 임원들을 소집했으며, SK하이닉스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생산

량을 30% 가까이 줄였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잠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부터는 다시 수요도 줄고 장비 투자도 얼어붙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시장은 변수가 많아서 실제 시장 변화 외에는 어떤 분석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는 정치적 분석에 따라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무역분쟁도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5G만 바라보는 반도체... 5년내 전세계 5G 가입자 19억명

에릭슨LG '모빌리티 보고서' 발표



박병성 에릭슨LG 수석 네트워크 컨설턴트가 올해 상반기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구세윤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이 4세대 이동통신(4G) 보다 빠른 속도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2024년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9억건에 이를 전망이다.

에릭슨LG는 24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는 전 세계 180여개 국에서 사업 중인 에릭슨이 반기별로 내는 보고서로, 고객 데이터와 내부적인 리서치를 종합해서 내놓는 전망이다.

올 상반기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용화된 5G 가입 비율은

2009년 상용화됐던 4G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운 5G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많은 통신 사업자가 5G를 상용화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24년이 되면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9억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15억건 보다 27%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총 모바일 가입건수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대규모 5G 가입이 예상되는 시기는 2020년이다.

4G 가입건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

로 보인다. LTE 가입건수는 2022년 약 53억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는 4G 기기를 5G 기기로 바꾸는 사용자가 늘면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여러 시장에서 5G가 상용화되며 몇몇 통신 사업자는 상용화 첫 해에 5G 인구 커버리지(통신범위) 확장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9년 말까지 93%의 인구 커버리지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5G가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칩셋 및 기기 공급 업체들의 강력한 의지

도 중요하다. 모든 주요 주파수 대역에서 5G 스마트폰이 올해 안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5G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북미지역으로 2024년 63%에 이를 전망이다. 동북아시아(47%)와 유럽(40%)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한국이 초기 5G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박병성 에릭슨LG 수석 네트워크 컨설턴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전 세계 5G 가입건수가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국의 가입건수만 300만~400만으로 예상된다"며 "초기 5G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